

한국벤처투자(주) 김형기 대표

‘벤처백년지대계’의 튼튼한 후원자

한국벤처투자(주)

김형기 대표



'벤처생태계'라는 말이 있다. 벤처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 즉 정부, 기관투자자, 모태펀드, 창투사, 벤처기업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성공과 성장 역시 '벤처생태계'가 탄탄해야 이뤄질 수 있을 터. 벤처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의 시작, 모태펀드를 이끄는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을 만났다. 단순한 자금 공급원의 역할을 넘어 '벤처백년지대계'의 든든한 후원자로 뛰고 있는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_ 김윤희

_ 벤처의 미래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대표 김형기, www.k-vic.co.kr)는 모태펀드(Fund-of-Funds)를 운영 관리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다. 모태펀드란 개별기업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벤처캐피탈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 이를 통해 벤처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은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심정은 바짝 타들어가는 눈을 보는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대출이나 용자는 기업의 돈가뭄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에게 현재 시점에서의 모태펀드의 존재이유를 묻자 벤처투자를 저수지에 비유하며 답을 주었다.

"벤처자금은 일반 용자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는 해갈의 의미도 있지만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미래의 가뭄까지 대비하는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의 성공은 곧 미래의 먹거리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채권연구원(08년 6월)에 따르면 일반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각각 5.85%, 3.4%만을 기록한 반면, 벤처투자를 받은 업체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이 무려 132.9%, 고용증가율은 57.5%에 이른다. 즉 벤처펀드의 투자는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직접적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

또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투자펀드 및 지방소재기업 투자펀드 등 순수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시장실패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하여는 모태펀드에서 70%까지 출자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벤처펀드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관출자자의 동반투자를 유인해 전체적인 벤처투자의 재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_ 2009년 한국벤처투자의 업그레이드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을이 우리가 서야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고객인 창투사 및 벤처기업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김 대표가 한국벤처투자에 부임한지 이제 6개월. 그는 직원들과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을 제시했다. 벤처투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은 항상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벤처기업을 키우자'는 그의 지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자금운용이 보수적 성향을 보입니다. 민간섹터(Private sector)는 더욱 심하지요. 결국 우리 회사 같은 공기업이 나서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 자금뿐 아니라 민간 자금 투입 규모를 늘려 올해까지 모태펀드 총 운용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벤처투자는 기존 자금중개자의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유치를 통한 벤처투자 확대를 추구 중이다. 현재 중산 기금, 문화기금, 특허기금 이외에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벤처산업에 투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3 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도 계획 중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또 다른 고객감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중순에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방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지방 벤처기업이 서울의 창투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한국벤처투자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투자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첫 회부터 행사의 성과가 좋았다. 행사에 참가한 한 창투사의 심사역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선정되었다며 적어도 3~4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월 13일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순회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벤처투자 활성화 간담회, 정부 시책설명회 및 특강,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전략상담회로 구성했고요. 첫 회부터 건실한 지역기업들의 참가하였습니다. 직접 나가보니 지역벤처기업은 물론 현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김형기 대표는 로드쇼에 쏟아진 이 같은 관심이 지역벤처투자시장의 목마름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집중적으로 지방 벤처투자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에는 대전·충남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4월), 호남·제주(5월), 경남·부산·울산지역(6월)에서 개최해서 지방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벤처와 30년, ‘사람’이 답이다

김형기 대표는 KTB네트웍스의 전신 한국기술개발에서 벤처와의 인연을 시작하였다. 이후 KTB에서 투자 상무 및 한국기술 투자의 대표 등을 거치며 30여 년 동안 그 자신이 현장에서 벤처투자 역사의 일원으로 지내왔다. 수없이 많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왔고, 수없이 많은 투자를 통해 그들과 같이 호흡해온 김형기 대표. 그에게 벤처 성공의 묘를 묻자 거침없이 답한 단어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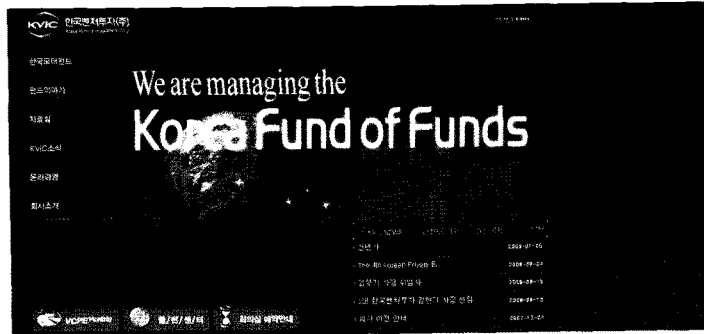
“벤처현장을 30년 가까이 누비며 체득한 사실은 기술이나 자본은 기본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실현하고, 또 그 기술에 투자하고, 제품화 하여 마케팅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A급 사업가가 B급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B급의 사업가가 A급의 사업아이템을 추진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도 제가 현장경험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벤처투자에 사용되는 ‘용감하고 참을성 있는 돈(brave patient money)’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돈이라 확신한다는 김형기 한국벤처투자 대표. 그는 기술과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벤처 특유의 기업가정신이라고 말한다. 그와 한국벤처투자는 단순한 자금의 전달자 역할을 넘어, 벤처만의 기업가정신을 지켜내고, 키우기 위해 언제나 문을 열고 벤처기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 2009년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 방침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벤처투자 분위기가 급격한 침체로 이의 회복을 위한 모태펀드의 기능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 증가. 이에 벤처투자시장의 활력회복을 위해 금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



○ 2009년 1차 출자사업에 22개 조합선정, 1,300억 원 선착순 출자, 4,000억 규모 투자조합 결성지원

● 모태펀드 운용 전략

○ 우선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 방위산업 분야 전문투자펀드를 지원대상에 포함
 - 이들 산업은 GDP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로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지식경제부)

○ 창업초기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하여는 모태펀드에서 70%까지 출자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기간(7년 이상)이 길고 실패가능성도 높아 순수 민간 벤처캐피탈로서는 투자가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됨
 - 반면 막대한 R&D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한 특허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통로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서 모태펀드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큼

* 창업초기(3년 이하)기업 투자비중(%)(05) 26.1 → (06) 30.3 → (07) 36.8 → (08.6) 38.3

○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위한 펀드와 주주인수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
 - 금년도 투자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부진에 빠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M&A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전망

* 모태펀드를 통한 M&A 펀드 결성현황(08. 11말 현재) : 11개 조합, 4160억 원

○ 모태펀드 연중 수시출자 실시
 - 10억 원 미만의 출자요청에 대하여는 약식심의를 통해 언제든지 출자가 가능